

UNHCR

2011/2012
연례보고서



UNHCR
The UN Refugee Agency
유엔난민기구

유엔난민기구(UNHCR)는 난민을 보호하고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UN기구입니다.
www.unhcr.or.kr | 02-773-7272 |
withyou@unhcr.or.kr |
<http://www.facebook.com/unhcrkorea> |
http://blog.naver.com/unhcr_korea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7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UNHCR
The UN Refugee Agency
유엔난민기구

CONTENTS

- 03 함께 지켜가는 약속
- 2011년 :
당신과 유엔난민기구가 함께 한 일
- 04 글로벌 전략 우선순위 이행
- 07 긴급 구호
- 09 재정 보고
- 11 난민의 선택, 당신의 선택
- 2012년 :
당신과 유엔난민기구가 함께 할 일
- 14 글로벌 전략 우선순위 선정
- 15 아프리카
- 16 중동 및 북아프리카
- 17 아시아 태평양
- 18 유럽
- 19 아메리카
- 20 필요한 자금 및 조성 계획
- 난민촌에서의 시간
- 21 탐힌 난민촌의 하루
- 22 코브 난민촌의 한 해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소식
- 23 보고 및 계획

2011년, 유엔난민기구의 임무를 재확인하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UN난민고등판무관

우리 모두는 1951 난민 협약 60주년을 맞이한 지난 한 해가 차분하고 평온하게 지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은 정치·사회·경제적 혼란과 함께 급격한 인도주의적 위기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제가 유엔난민기구의 고등판무관이 된 이래 그 이따금 해보다 더 격동적인 한 해가 되었습니다. 특히 남수단과 아프가니스탄에서 4명의 직원이 공격당해 사망한 비극적인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2011년은 리비아와 코트디부아르에서 일어난 폭력사태로 고향을 등질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피난 행렬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20년간 지속된 분쟁과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이웃 국가로 내쫓긴 소말리아 난민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말 95만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유엔난민기구는 긴급구호 역량 및 자원을 최대한 사용하여 이 위기들에 대응하였습니다. 지난해 내내 관찰된 대규모 인구이동은 2012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핵심 원칙들의 재확인

201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직면한 긴급위기의 발생은 유엔난민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중요한 핵심 원칙을 재확인시켜주었습니다. 첫째, 난민보호의 원칙 -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주변국들은 국경을 열어 폭력사태 및 분쟁을 피해 피난처를 찾는 수천만 명의 난민을 수용해주며 난민 보호의 원칙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지부티,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나, 요르단, 케냐, 레바논, 라이베리아, 남수단, 튀니지, 터키, 그리고 예멘의 정부와 시민들이 보여준 헌대는 특별한 감사를 받아 마땅합니다. 둘째, 긴급구호 역량강화 -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긴장 상태에서 유엔난민기구는 620명의 긴급구호 요원들을 40곳이 넘는 긴급구호 현장으로 투입하였고, 전세계 7군데에 있는 긴급구호 물류창고에서 매주 57톤의 구호물자를 공수하며 전년 대비 최고 4배 규모로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효과적인 파트너십 - 유엔난민기구는 실시간 평가를 바탕으로 난민 관련 긴급사태에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좀 더 예측가능하고 포괄적으로 진행하기위한 몇 가지 계획들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긴급사태에서 파트너들과 영역별 수요, 지도 및 정보를 공유했고 대화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리더십 및 전략 기획을 강화하고 피해지역, 정부, 후원자에 대한 책무를 지킬 수 있도록 기구간 협력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함께 지켜가는 약속

이제 우리가 뒤로 한 이 불안했던 한 해는 난민과 강제이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유엔난민기구의 임무가 6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의미있으며 그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음의 생생한 증명이었습니다. 우리 기구는 이러한 도전을 가까이 받아들이며 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보호대상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국제 사회가 다함께 책임을 감당하고 난민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우리는 함께 지켜가는 약속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경행하게 될 것입니다.

2011 글로벌 전략 우선순위 이행

유엔난민기구의 글로벌 전략 우선순위(GSP: Global Strategic Priorities)는 개선이 필요한 핵심 영역을 반영하여 설정된 2개년 전략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지난 2009년말 글로벌 수요조사(GNA: Global Needs Assessment)의 맥락 안에서 (1)우호적인 보호 환경 조성, (2) 공정한 보호 절차 및 문서화, (3) 폭력과 착취로부터의 보호,

(4) 기본적 필요 해결 및 필수적 지원, (5) 지역사회의 참여와 자가운영 도모, (6) 영구적 해결책 모색, 그리고 (7) 본부 및 지역허브(hub) 지원이라는 7가지 글로벌 전략 우선순위 및 그에 따른 사업 계획을 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일어난 대규모 긴급 사태들과 급변하는 인도주의적 상황으로 보호대상자들의 필요가 여층치를 초과하였고, 케냐 다담 난민촌과 같이 급속도로 팽창하는 상황에서는 실시간 보고 유지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 때 유엔난민기구는 상황 추정을 불기피하게 줄이고 기구의 역량을 인명구조 및 긴급구호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여러 영역에 걸쳐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으로 여러 정부 및 지역사회가 1951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난민협약)과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이하 무국적자 협약)에 가입하고, 난민 등록과 정보 수집같은 의사 결정에서 보호대상자의 참여 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생존자 및 특별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된 대규모 긴급 위기 발생으로 인해 아동보호 및 식수위생, 영양 지원 등의 전진은 안타깝게도 다소 늦추어졌습니다.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유엔난민기구뿐만 아닌 난민보호국들의 시설 및 자원이

바닥나고, 지난 2년만 어느 해보다 많이 모인 자발적 후원금도 대규모 위기를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유엔난민기구는 지난 한 해의 성과 및 조사 결과와 더불어 불가피하게 달성하지 못한 목표들을 함께 점검하면서 앞으로 더 나은 내·외부적 사업 계획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미 유엔난민기구의 핵심적인 역할인 난민보호 및 영구적 해결책 모색과 함께 지난해 큰 수요가 있었던 영양, 식수, 교육 지원에 대한 사업 및 운영 전략이 2012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호대상자의 어려움과 기본적인 결핍을 해결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우호적인 보호 환경 조성**
- 유엔난민기구의 모든 보호대상자들에게 우호적인 보호 환경을 조성한다
- 공정한 보호 절차 및 문서화**
- 보호대상자가 비호 신청을 할 때 차별없이 공정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대응받으며 적절한 문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폭력과 착취로부터의 보호**
- 폭력 및 착취를 포함한 위협으로부터 모든 보호대상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 기본적 필요해결 및 필수적 지원**
- 모든 보호대상자가 차별없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보한다
- 지역사회의 참여와 자가운영 도모**
- 보호대상자들이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참여와 독립성을 도모한다
- 영구적 해결책 모색**
- 보호대상자의 영구적 해결책 모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유지시킨다
- 본부 및 지역 허브(hub) 지원**
- 국제 보호를 이끌어가는 기구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보호대상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을 지원한다

우호적인 보호 환경 조성

149개국

1951 난민협약, 1967 난민 의정서 기준

30개국

비호신청자 국경 접근 개선

71개국

1954 무국적자 감소 협약 기준



공정한 보호 절차 및 문서화

78개국

난민 신청 접수 환경 개선

10개국

국내실향민 등록 및 정보 수집 절차 개선

23개국

비호신청자 대상 난민 심사 접근성 개선



사업목적	세부 사업목표	최소계획	결과
국가 및 지역적 법체계 개선	• 108개국 국내 법체계 국제 보호 기준에 맞도록 개선	25	23
	• 1951 난민협약과 1967 난민 의정서 기준국 확대	148	149
	• 1954 무국적자 감소 협약 기준국 확대	68	71
	• 1961 무국적자 감소 협약 기준국 확대	41	42
	• 국내실향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노력 개선	13	13
국가 및 지역적 이주 정책 개선	• 국경 이주 정책에 보호 안전장치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71개국의 이주 정책 개선	25	21
무국적자 보호 및 감소	• 77개국 중 출생 무국적자 시민권 취득법 개선국 확대	8	3
	• 1,200만 무국적자 중 시민권 취득 수 증가	500,000	257,600
협력강화	• 보호 현안 해결을 위한 73개 사업에서 정부, 국내외 파트너와 협력 증대	30	31
	• 국내실향민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난민기구가 활동하는 국가내 협력 증대	15	15
입국 허가 및 강제송환금지	• 강제송환이 보고된 60개국 강제송환 위험 감소	16	23
	• 49개국 내 비호신청자들의 국경에 대한 접근성과 입국 허가 개선	13	30
	• 63개국 내 국경요원이 비호신청자를 담당관에 연결하도록 하는 국가 확대	20	15
환경 보호	• 강제이주로 인한 환경 파괴 21개국 재건 복구 지원 및 위험 경감	13	13

사업목적	세부 사업목표	최소계획	결과
난민 심사, 등록, 정보 수집 절차 개선	• 78개국 중 난민 신청 접수 환경 개선국 확대	38	46
	• 난민촌 내 난민 및 비호신청자 중 개별적으로 등록된 비율 증대	89%	97%
	• 도시 거주 난민 및 비호신청자 중 개별적으로 등록된 비율 증대	50%	94%
	• 국가내 국내실향민 등록 및 정보 수집 절차 개선	7	10
	• 41개국 내 불법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비호신청자들에게 대한 구금 감소	13	9
난민 심사 접근성 강화	• 82개국 중 비호신청자 대상 난민 심사 접근성 개선국 확대	20	23
	• 17개국 중 무국적자 대상 난민 심사 접근성 개선국 확대	6	5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 심사	• 31개국 정부에 의한 난민 지위 인정 개선	20	15
	• 27개국 내 유엔난민기구에 의한 난민 지위 인정 중 과부하로 지연된 비율 축소	15%	17%
이산가족 상봉 지원	• 31개국 대상 이산 가족 결합 지원 강화	10	2
	• 27개국내 무의탁 아동의 가족 결합 지원 강화	9	12
난민 및 시민권에 대한 적절한 문서화	• 103개 난민촌 내 출생자 출생증명서 발급률 증대	65%	51%
	• 도시 출생 난민 출생증명서 발급률 증대	55%	89%
	• 난민촌 거주 난민과 비호신청자 신분확인증 발급률 증대	55%	53%
	• 도시 거주 난민과 비호신청자의 신분확인증 발급률 증대	47%	81%
	• 13개국 국내실향민 주민 등록 접근성 개선국 확대	7	10

폭력과 착취로부터의 보호

92%

성폭력 생존자 가운데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을 받는 비율

22개 사업현장

성폭력 대응 강화

27개국

보호대상자 사망을 허용 기준치 미만으로 감소

28개국

난민촌 태아 출생시 보건종사자 투입 허용 기준치 부합



기본적 필요해결 및 필수적 지원

사업목적	세부 사업목표	최소계획	결과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생존자(Sex or Gender-based Violence Survivors) 중 지원 대상 비율 증대 유엔난민기구 사업 현장 내 성폭력 대응 강화 신고율 증대로 인한 매 해 인구 10,000명당 성폭력 사건 신고 건수 증가 	88%	92%
법적 해결 접근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64개국 중 보호대상자들의 국내 사법체계 접근성 개선국 확대 18개국 중 거주 국내실향민의 국내 사법체계 접근성 개선국 확대 	22 / 7	17 / 4
아동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민촌 거주 12-17세 청소년 난민 대상 유엔난민기구 프로그램의 참여율 증대 도시 거주 12-17세 청소년 난민 대상 유엔난민기구 프로그램의 참여율 증대 무의탁 아동 및 미아의 난민 지위 우선 인정 비율 증대 15개국 내 아동이 무력 단체에 모집되는 위험 감소 	40% / 18% / 37% / 6	18% / 56% / 19% / 3
아동 자유 및 임의적인 구금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개국 중 보호대상자에게 거주지 이동의 자유를 허가하는 국가 확대 52개국 중 유엔난민기구의 보호대상자 접근성 개선국 확대 	13 / 22	8 / 3

사업목적	세부 사업목표	최소계획	결과
식량 안보 및 영양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64개 난민촌 포괄적급성영양실조(GAM: Global Acute Malnutrition) 비율 허용 기준치 이하로 감소 14개 난민촌 중 빈혈 발병률 허용 기준치 이하로 감소 17개 사업지역 식량 지급이 세계식량계획(WFP)과 합의된 1인 권장 칼로리에 적합하도록 개선 	15 / 8 / 17	4 / 11 / 3
피난처, 기본적인 생존 물자 및 위생 물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민촌 내 적절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난민의 비율 증대 33개 대상 귀환지역 내 모든 귀환민이 적절한 주거시설 거주 16개국에서 국내실향민을 위한 피난처 헌안 개선 23개국 내 난민 및 비호신청자 대상 충분한 의료 및 생필품 지원 53개 난민촌 내 여성을 위한 위생용품 허용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원 	65% / 4 / 8 / 9 / 30	59% / 4 / 6 / 19 / 16
식수 및 공공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56개 난민촌 내 매일 1인당 20리터의 물 제공 34개 귀환 지역 내 귀환민 가정에 적절한 물 공급 96개 난민촌 내 화장실을 포함한 적절한 위생 시설 제공 28개 귀환 지역의 각 귀환 가정에 화장실 설치 	20 / 6 / 30 / 8	10 / 5 / 11 / 2
기초 보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27개국의 보호대상자 사망을 허용 기준치 이하로 감소 20개국의 5세이하 보호대상자 홍역 예방접종을 허용 기준치 부합 135개 난민촌 내 태아 출생시 숙련된 보건종사자의 투입 비율 허용 기준치 부합 28개국 내 5세이하 보호대상자 사망을 허용 기준치 이하로 감소 	18 / 15 / 20 / 21	27 / 4 / 28 / 24
에이즈 (HIV/AIDS) 치료 및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개국 내 ART 프로그램* 참여 보호대상자 증가 (ART Programme: Anti-Retroviral Therapy-항 레트로바이러스치유 프로그램으로 에이즈 감염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치료) 	13	10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민촌 거주 6-11세 아동 난민의 초등학교 등록률 남녀 균등히 증가 도시 거주 6-11세 아동 난민의 초등학교 등록률 남녀 균등히 증가 난민촌 거주 12-17세 청소년 난민의 중학교 등록률 남녀 균등히 증가 도시 거주 12세-17세 청소년 난민의 중학교 등록률 남녀 균등히 증가 	79% / 68% / 40% / 42%	69% / 53% / 28% / 27%
특별 보호가 필요한 집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92개 난민촌 거주 장애 난민 중 자립 지원 대상 비율 증대 82개 도시 거주 장애 난민 중 자립 지원 대상 비율 증대 92개 난민촌 거주 노년층 난민 중 특별 지원 대상 비율 증대 84개 도시 거주 노년층 난민 중 특별 지원 대상 비율 증대 12개국 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내실향민에 대한 지원 확대 	53% / 47% / 55% / 39% / 6	36% / 48% / 60% / 40% / 8

지역사회의 참여와
자가운영 도모/
영구적 해결책 모색

33개 사업

난민이 대표 운영단에 포함되어 참여

8개국

난민이 일하고 소득을 얻을 권리 확보

10개국

국내실향민을 위한 영구적 해결책 강화



사업목적	세부 사업목표	최소계획	결과
지역사회의 자가운영 및 균등한 대표성	• 53개 사업 중 수혜자 참여조사를 포함한 사업 구상 증가	35	35
	• 49개 사업 중 난민의 대표 운영단 참여 사업 증가	31	33
	• 8개 국내실향민 사업 중 국내실향민이 대표운영단에 포함된 사업 증가	4	4
	• 95개 난민촌 내 여성 참여율 50% 확보 및 대표운영단 구조 개선	40	13
독립성 및 생계유지 지원	• 47개국 내 난민에게 일하고 소득을 얻을 권리 제공	6	8
	• 50개국 중 난민 및 비호신청자 대상 토지 사용 및 농산물 생산 허가국 확대	8	4
	• 16개국 내 국내실향민의 독립적인 생계 개선	5	5

사업목적	세부 사업목표	최소계획	결과
자발적 귀환	• 11개국 내 국내실향민을 위한 영구적 해결책 강화	8	10
	• 23개국 내 적절한 생계수단 및 자산 보유 귀환민 증가	10	6
	• 12개국 내 국내실향민을 위한 귀환 가능성 증가	5	3
재건복구 및 재통합 지원	• 21개국 중 귀환민 시민권 재취득 허용국 확대	6	4
	• 22개국 중 귀환민의 주거, 토지, 및 재산 소유권에 대한 접근성 개선국 확대	4	3
	• 재통합 지원의 지속적인 개선국 확대	7	10
재정착	• 재정착 수용국의 제안을 통한 제3국으로의 재정착 비율 증대	10%	2%
	• 긴급상황으로 인한 개인의 제3국으로의 재정착 비율 증대	60%	47%
현지통합	• 78개국 중 귀화 절차에 있어 난민에게 우호적인 대우 제공국 확대	10	5
	• 41개국 중 현지 통합에 있어 단체 난민 승인국 확대	7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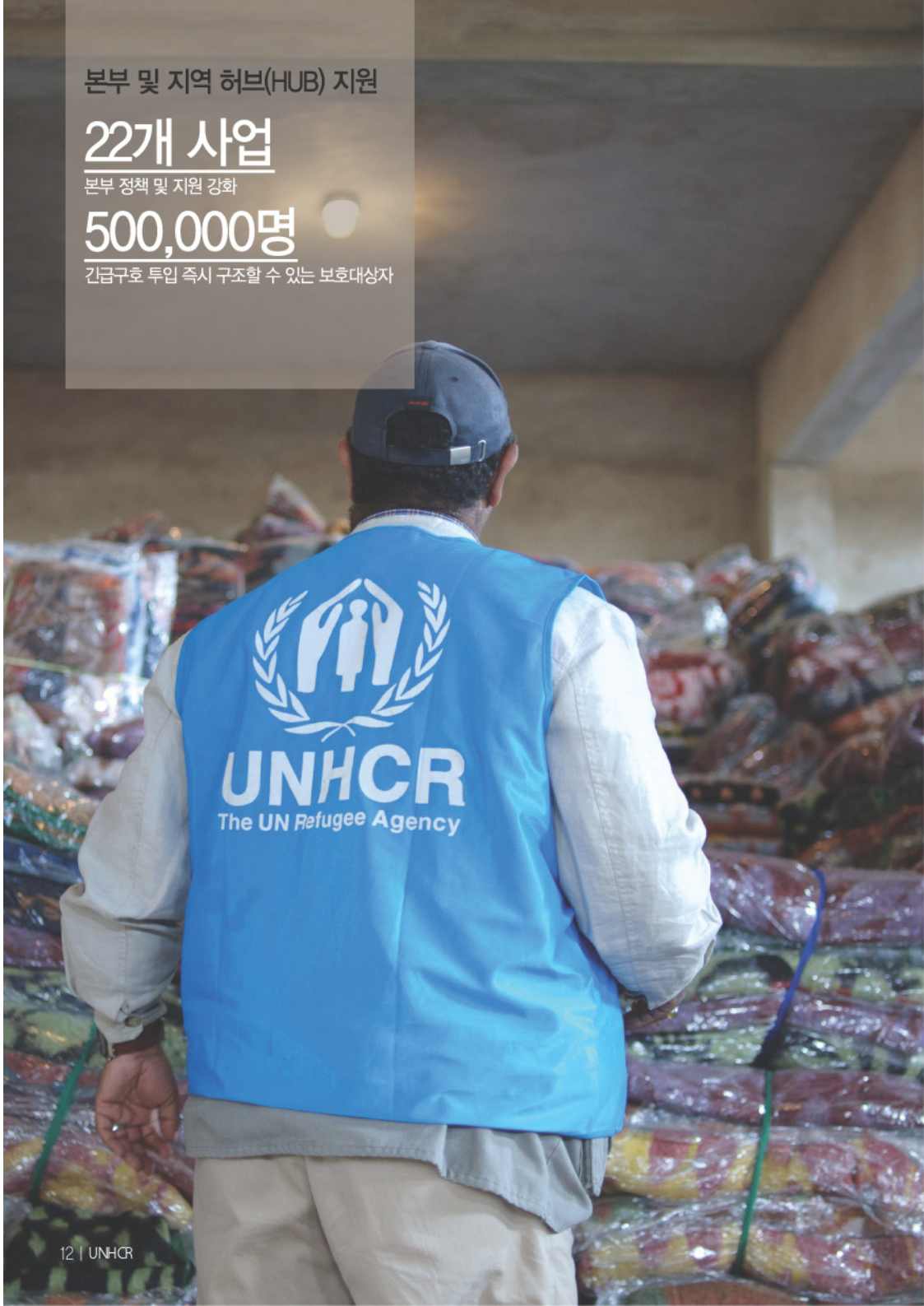
본부 및 지역 허브(HUB) 지원

22개 사업

본부 정책 및 지원 강화

500,000명

긴급구호 투입 즉시 구조할 수 있는 보호대상자



사업목적	세부 사업목표	최소계획	결과
정책, 조언, 지원 강화	• 글로벌전략우선순위 사업영역 중 20개 목표 미달 사업 현장에 본부 지원 강화	20	22
	• 20개 미달 사업의 적합한 운영 및 이행을 위한 개선 및 개발	10	14
	• 조사보고서의 권고사항 준수율을 지속적으로 측정	100%	80%
	• 이행에 따른 합의 및 평가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제도 생성	0	0
전략적 방향설정	• 성과 기준 관리 방법 도입 및 사용 극대화	100%	92%
우선순위선정, 자원배분, 자금 운영	• 보호대상자의 필요에 우선한 자원 배분	0	0
	• 통합적 내부 재정 조절 체계 설립 및 재정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	0	0
조직적 발전 및 구상	• 현장에 대한 본부의 전반적 방향 제시 및 효과적 지원	0	0
자원 동원	• UN 공동 기금으로 채워지는 재정 수요 비율 증대	5%	24%
	• 민간영역 후원금 증가 및 후원금 내 비지정기금 비율 증대	6%	3%
여론 및 대외협력	• 보호대상자에 대한 우호적이고 지속적인 언론 보도국 비율 증대	0	0
	• 유엔난민기구의 역할을 대변하는 국제 언론 보도 증가	0	0
기구간 협력 및 전략적 파트너십	• 유엔 기구간의 상호 이해 및 지지 최적화	0	0
	• 유엔난민기구 사업 이행 파트너 확대	37%	37%
전략적 인력 관리	• 다양하고 균형적인 생비의 업무환경 및 조직의 현재 및 미래의 필요 충족	0	0
정보 및 의사소통 기술 운영	• 현장의 정보 및 의사소통 필요 지원, 저비용 고효율의 정보·의사소통 기술 운용	35	106
공급망 및 물류 관리	• 글로벌 자원관리체계의 전면적 도입을 통한 물류의 정시 운반	41	98
긴급사태 대비 및 대응 역량 강화	• 초기경보체계 개선 및 긴급사태시 50만 명을 즉시 구조할 수 있는 긴급구호 역량 강화	0	0
현장 내 안전 확보	• 유엔난민기구의 모든 현장이 MOSS 지침을 준수하는 DSS 기준에 부합	100%	90%
	• 갑작스런 안전 위기시 현장 안전 전문가가 투입되어 현장 안보 지원	0	0



2011 긴급구호

2010-2011 글로벌 전략 우선순위의 도입과 함께 유엔난민기구는 긴급구호, 안전, 공급 부서(DESS: Division of Emergency, Security and Supply)를 신설하고 기구의 긴급구호 역량 강화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아낌없는 노력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결과 긴급구호 역량관리 서비스(ECMS: Emergency Capacity Management Service), 현장 안전 부문(FSS: Field Security Section), 그리고 공급운영서비스(SMS: Supply Management Service)의 개혁과 함께 전지구적 차원의 큰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11년 대규모 긴급 위기 대응 시 여러 차례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아랍의 봄(Arab Spring: 2010년말 아랍 중동 국가 및 북아프리카로 확산된 민주화 운동)에서 파생된 강제이주, 코트디부아르 대선 이후의 폭력시태, 소말리아의 분쟁과 겹친 동아프리카 기근, 수단과 남수단의 강제이주 등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전지구적 혁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1 긴급구호 물품 공수 물량

인력

2011년 유엔난민기구는 40개국 이상의 긴급구호 현장에 620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호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236명, 2009년 248명에 비추어 3배 가량 증가한 것이며, 파견된 620명 중 여성의 비율은 42%였습니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긴급구호 활동지역에는 현장안전전문가(Field Safety Advisors)를 64차례 파견하여 직원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이행하면서 궁극적으로 현장 직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알제리, 코트디부아르, 카자흐스탄, 이라크, 리비아, 수단, 남수단, 튀니지 등이 포함됩니다.

물자

인력뿐만 아니라 물자 수송 역시 유엔난민기구 긴급구호의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2011년 한 해 53대의 수송기로 나른 담요, 양동이, 조리 도구, 제라켄식수용 물통, 침낭, 방수천, 6인용 텐트와 같은 긴급구호 물자들은 차그마치 2,994톤에 육박하였습니다. 이 중 7대의 수송기가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등의 동아프리카 긴급구호를 위하여, 그리고 13대가 남수단 긴급구호를 위해 급파되어 물자를 전달하였습니다.

수송

지난 해 3월 유엔난민기구는 리비아에 거주중인 외국인들을 폭력시태로부터 대피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와 협력하여 인도주의적 대피소(Humanitarian Evacuation Cell)를 만들었습니다. 3월 한달간 404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외국인들을 인근의 이집트와 튀니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켰으며 이 중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으로 동원된 비행기는 전체의 38%인 151대로 총 29,500명의 리비아 거주 외국인들이 유혈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11년을 지나고 유엔난민기구의 긴급구호 대비 및 대응 역량은 어느 때보다 강화되어 전세계 어떠한 긴급구호 현장에서라도 50만 명 이상의 긴급한 필요를 72시간내 충족시킬 수 있는 체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안전 관리를 통해 직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더욱 효과적인 긴급구호 사업을 이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UNHCR in ACTION



2011 재정보고

유엔난민기구의 예산은 2010년부터 시행된 글로벌수요조사(GNA)를 바탕으로 기획되며 본부의 검토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됩니다. 2010년 10월 확정된 예산은 미화 33억 달러(한화 약 3조 8천억 원)이었으나 2011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리 예측치 못한 새로운 긴급구호 수요에 따라 38억 달러(한화 약 4조 3천억 원)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전 세계적 금융 및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민간부문을 비롯한 다양한 곳에서 따뜻한 손길이 이어져 미화 21억 달러가 모금되며 전년도 후원금보다 2억 2천 4백만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후원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필요예산의 55%만이 모금되는 것에 그쳐 아쉽게도 유엔난민기구의 수많은 보호대상자의 수요에 모두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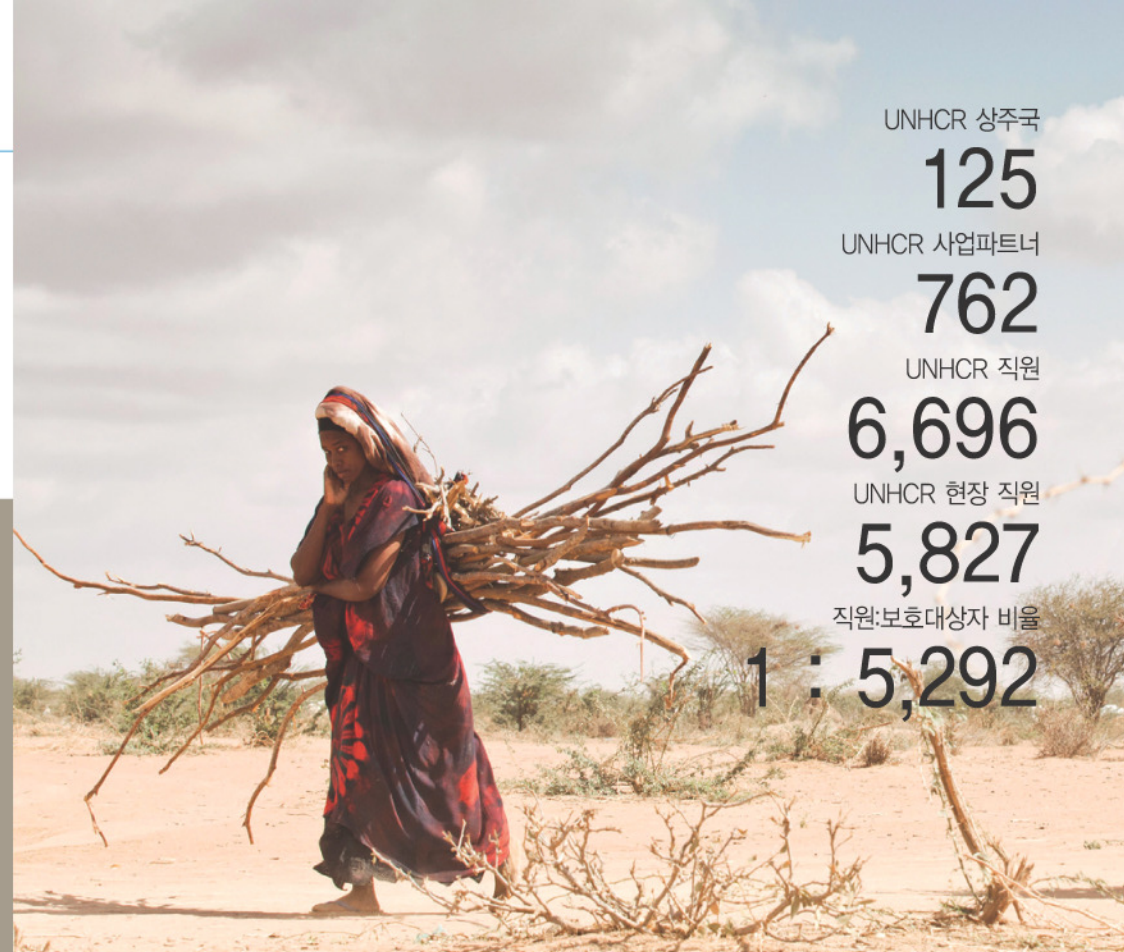
글로벌수요조사 The Global Needs Assessment (GNA)

유엔난민기구는 국제사회로부터 요청되는 기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글로벌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예산을 기획하고 조정합니다. 글로벌 수요조사는 각 지역사무소가 담당하는 국가별 보호대상자의 수와 사업필요성을 조사하고 그 과정에 개입된 정부, UN기구, NGO와의 협의를 거친 후 완성됩니다. 그 후 2개년간 보호대상자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예산을 구성하고, 본부의 사업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세밀한 검토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글로벌전략우선순위 The Global Strategic Priorities (GSPs)

유엔난민기구는 2009년부터 글로벌전략우선순위를 도입하여 글로벌수요조사(GNA)의 맥락 안에서 중요도와 긴급도가 높은 사안들을 반영합니다. 글로벌전략우선순위는 2개년간 사업을 이행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공통적인 사안들을 정하며, 기구가 그에 따라 가져야 할 목표를 설정합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행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배분할 때에도 사용됩니다.

UNHCR의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
35,438,870



UNHCR 상주국

125

UNHCR 사업파트너

762

UNHCR 직원

6,696

UNHCR 현장 직원

5,827

직원:보호대상자 비율

1 : 5,292

필요한 자금 규모 Required Funding

2011년 유엔난민기구의 최종 확정 예산은 미화 38억 달러로, 당초 미화 33억 달러에서 6개의 보충 사업(supplementary programmes)이 추가되면서 상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미화 6억 달러 상당의 추가 예산은 운영비 미화 1억 2천 5백 9십만 달러, 관련 신규·추가사업(NAM: New or additional activities-mandate-related) 비축비 미화 5백만 달러, 그리고 아래 6개 지역을 위한 보충사업비 미화 5억9십만 달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파키스탄 홍수 긴급구호 (Emergency assistance to flood-affected populations in Pakistan) - USD 124,500,000
- 키르기스스탄 긴급구호 (The emergency situation in Kyrgyzstan) - USD 11,400,000
- 북 아프리카 및 지중해 긴급구호 (Emergency response in North Africa and the Mediterranean) - USD 110,000,000
- 코트디부아르 긴급사태 대비 및 대응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in the Cote d' Ivoire situation) - USD 126,000,000
- 수단 긴급사태 대비 및 대응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in the Sudan situation) - USD 60,600,000
- 소말리아 강제이주 위기 대응 (The Somalia displacement crisis) - USD 71,300,000



모금 Available Funding

유엔난민기구가 지난 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제 조금된 자금은 미화 24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자금에는 전년도 이월금(carry-over) 미화 2억3천 4백만 달러와 예산 조정, 환율 등으로 얻은 순이익(net income) 미화 4천 6백만 달러, 그리고 유엔분담금(UN Regular Budget) 미화 4천 4백 1십만 달러를 포함한 2011년 후원금 미화 2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분	후원금액 (단위:USD)
자발적 후원금(94%)	1,999,134,415
UN 기금(4%)	89,140,304
UN 분담금(2%)	44,058,600
TOTAL	2,132,333,319

전년도 미사용 이월금(USD 234M) 및 원차익을 비롯한 순이익(net income; USD 46M) 제외 금액

민간영역 후원금의 성장

민간영역에서 유엔난민기구에 보내준 후원금은 약 미화 1억 달러로 작년에 비해 53%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후원자의 후원은 민간영역에서 가장 큰 부분으로 전체 민간영역 모금액의 61%를 후원해주었습니다.

2006 : USD 21,651,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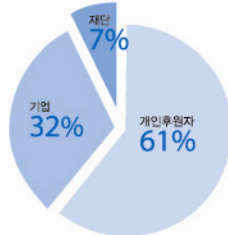
2007 : USD 34,155,473

2008 : USD 47,867,246

2009 : USD 50,710,725

2010 : USD 72,673,983

2011 : USD 111,075,292



지출 Expendi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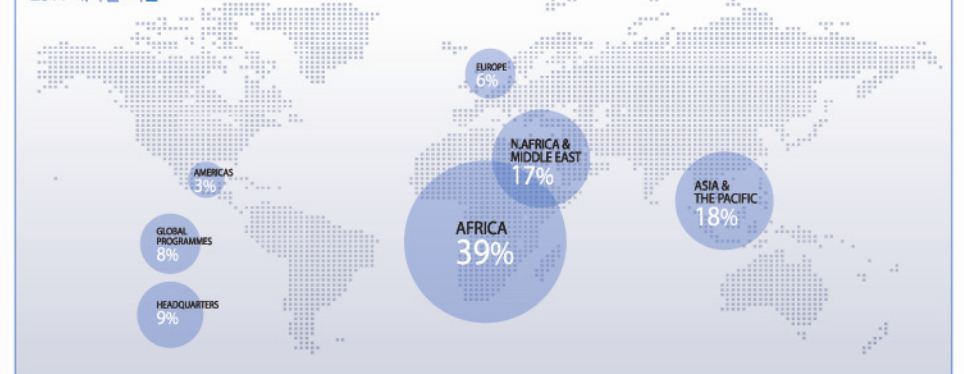
유엔난민기구의 2011년 전체 사업비 지출 중 아프리카 대륙이 전년도보다 3% 증가한 3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20%에서 18%로 오히려 지출 비율은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동 및 북아프리카가 17%, 유럽과 아메리카가 각 6%와 3%를 차지하였습니다. 긴급구호를 비롯한 기구 역량 강화 및 캠페인 등 글로벌 프로그램(Global Programme)으로 사용된 자금은 전체의 8%, 그리고 본부 및 각 사무소의 행정비는 9%에 머물렀습니다.

(단위 : USD)

구분	난민	무국적자	재통합	국내실형인	TOTAL
아프리카	680,220,342	8,602,326	39,240,756	129,678,458	857,741,882
중동 및 북아프리카	275,629,866	2,624,737	22,644,704	61,515,786	362,415,093
아시아 태평양	174,864,477	13,022,080	53,328,214	144,776,687	385,991,458
유럽	89,188,916	8,055,235	6,165,837	24,811,079	128,221,067
아메리카	38,143,676	1,232,309	-	18,072,803	57,448,788
글로벌 프로그램	180,456,496	-	-	-	180,456,496
행정비	199,234,589	-	-	-	199,234,589
합계	1,637,739,362	33,536,687	121,379,511	378,854,813	2,171,509,373



2011 대륙별 지출





2012 글로벌 전략 우선순위 선정

2010년 시작된 유엔난민기구 통합적 수요 조사는 계속해서 개선되어 기구의 보호대상자들의 필요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세우는 데 기본 바탕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약 170여국에서 세밀한

조사 및 분석을 거쳐 완성되며, 이를 통해 유엔난민기구는 예상 수입이 아닌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요구되는 기금을 짜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글로벌 전략 우선순위(Global Strategic Priorities)를 재정비하여 통합적 수요 조사 및 보호대상자 예상 숫자에 맞춰 2012-2013년 2개년 계획을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으로 준비하였습니다.

- 인명 구조 지원
- 핵심 보호 활동
- 장기 강제이주 상황에서의 교육 및 생계 지원
- 혼합 이주(mixed migration) 상황에서의 보호 역량 강화
- 도시 난민 상황 대응 개선
- 비상 사태 (재난) 예비 및 대응 역량 확보
- 영구적 해결책 모색

위위의 모든 사업들 이행에 있어 유엔난민기구는 사업 효과성 및 비용 효율성 확보를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2012년 모금될 자발적인 후원금액 추이와 핵심적인 사업지역의 변화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및 사업 운영을 신중히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AFRICA



운영 28개 국내사무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가봉, 르완다, 탄자니아, 차드, 지부티, 에리트리아, 에디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수단, 남부수단,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가나, 기니아, 라이베리아, 앙골라, 보츠와나,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짐바브웨, 잠비아, 짐바브웨
2개 지역사무소**: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예산 USD 1,773,764,131

*국내사무소는 해당국 및 인근 국가 및 지역의 사업을 이행하는 사무소이며,
**지역사무소는 국내사무소의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아프리카 대륙 내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은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 지역의 긴급구호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무력 분쟁과 자연 재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안전한 삶을 찾아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지금도 사상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내전과 기근으로 2011년 한 해에만 40만 명 이상이 본국을 떠나 케냐와 에디오피아의 난민 캠프는 사상 초

유의 수용인원을 기록했고, 이에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촌을 추가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트디부아르의 난민 및 국내실향민 중 다수가 본국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으나, 소말리아의 기근 및 폭력사태, 그리고 수단과 남수단 국경의 불안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계속해서 대규모 강제이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년 중점 사업계획

-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확보하고 비호신청자들과 난민들이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비호 절차 와 보호 공간(territorial protection)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한다
- 보호대상자에게 호의적인 보호 환경과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며 보호대상자가 직면하는 위협 요소를 줄인다
- 긴급 구호 상황을 우선적으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킨다
- 앙골라, 라이베리아, 르완다 난민의 자발적 귀환 및 현지재통합과 같은 영구적 해결책 모색한다
- 긴급 구호 상황에 대해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구의 역량을 강화한다
- 유엔, 비정부기구, 정부의 다자간 협조 방안을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 사업 책무성과 효과적인 운영 및 이행에 있어 결과 중심 운영체계(result-based management system)를 강화하고 전체적 운영을 개선한다

중동 & 북아프리카

MIDDLE EAST & NORTH AFRICA



운영 13개 국내사무소: 알제리, 리비아, 모리타니아, 모로코, 튀니지, 서부 사하라 지역,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레반트, 시리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예멘
2개 지역사무소: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

예산 USD 565,519,089

지난 해 초, 중동과 북아프리카 대륙에서 확산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의 정치적 변화와 함께 기타 다른 국가 및 지역에는 전례없는 긴장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수많은 강제이주가 발생하였습니다. 리비아에서는 120만여 명이 강제 이주되어 국내 혹은 이집트나 튀니지 등의 인접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라크에도 여전히 100

만 명이 넘는 국내실향민이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으로 수많은 국내실향민이 발생하는 예멘에서도 동아프리카, 특히 소말리아 난민들이 입국하며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2012년 각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난민 및 국내실향민의 기초적 필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난민비호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2012년 중점 사업계획

- 도시 난민을 비롯한 모든 보호대상자에게 법적보호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보장한다
- 이라크 내 보호대상자를 위한 통합적 해결책을 찾고, 법적보호 및 지원을 이행한다
- 예멘과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혼합이주 내 보호대상자를 찾고 보호 및 비호신청 기회를 확보한다
- 서 사하라의 사라위족 난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하며 영구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 국제난민법 및 인도주의적 원칙에 일치하는 비호 시스템 및 절차 개선을 위하여 각국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한다
- 보호대상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 단체 및 시민사회와 연대한다
-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비/대응 역량을 기르는 동시에 전 직원의 안전을 보장한다
- 무국적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각국에서 무국적자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시아·태평양

ASIA AND THE PACIFIC



운영 21개 국내사무소: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인도,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동티모르, 베트남, 일본, 몽골, 파푸아뉴기니, 한국
4개 지역사무소: 카자흐스탄, 태국, 호주, 중국

예산 USD 502,010,602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유엔난민기구의 보호대상자 1,060만 여명을 수용하는 최대의 강제이주민 수용 지역으로 전 세계 난민 중 30% 가량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태 지역은 제3국으로의 재정착(resettlement)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곳의 난민 상황은 대규모인 동시에 장기적입니다. 유엔난민기구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한 이 상황은 수용국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고 파장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태 지역에는 아직 난민 보호에 대한 규범적 체

계가 없어 유엔난민기구는 이 곳에서 제도 및 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1년 니우루 공화국이 1951 난민협약을, 필리핀이 1954 무국적자 협약을 비준하였고, 투르크메니스탄이 무국적자 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는 스리랑카와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국내실향민이 본향으로 돌아간 해였으며, 아프가니스탄 난민 46,000명도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올해 귀환민 지원프로그램에 집중하여 이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2년 중점 사업계획

- 혼합이주에 대한 제도적이고 예측가능한 대응 및 도시 환경에서의 보호 및 비호공간을 확보한다
- 장기화된 아프가니스탄 난민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각국 정부와의 협력 아래 모색한다
- 파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내 국내실향민을 위한 영구적 해결책 및 보호 기제를 확보한다
- 무국적자 감소 및 방지를 위해 정부와 협력하는 동시에 무국적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 아프가니스탄 고위험 지역 사업을 지속하며 직원의 안전을 확보한다

유럽

EUROPE



운영 9개 국내사무소: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러시아 연방, 터키,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스페인
5개 지역사무소: 우크라이나, 벨기에, 헝가리, 이탈리아, 스웨덴

예산 USD 181,527,731

유럽에서 유엔난민기구의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 신청 제도 개선, 현지통합 지원, 혼합이주 상황의 법적보호, 긴급구호 및 영구적 해결책 모색 등 다양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내실향민 지원, 무국적자 문제 해결 및 방지를 비롯하여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 해소로 이어지고 있어 시민사회 및 언론과 연대하고 정부 및 기관 인식 개선에 동참하는 것 등이 중요한 역할로 규정됩니다.

2010년 유럽은 전 세계 난민의 15% 가량을 수용하고, 비호

신청자의 30%의 재정착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북아프리카 출신 비호신청자 중 2% 정도만을 수용하였음에도 유럽 내에서 비호 체계에 대한 논란은 거세져 유엔난민기구는 유럽 각국에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착 지원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 같은 시기의 2010년과 비교하여 난민지원인정률이 16%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유럽에 비호 신청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이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들이며 세르비아, 이라크 출신 난민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2012년 중점 사업계획

- 입국 허가 및 공정한 비호 절차와 같은 비호 체계 개선을 통하여 난민 보호를 강화한다
- 유럽 내 난민과 국내실향민을 위하여 영구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한다
- 유럽 내 무국적자 확인을 비롯한 합법 문서화 작업을 통해 무국적 상황을 해결하고 방지한다
-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재통합 정책 강화를 통하여 외국인혐오 및 인종차별을 극복한다
- 핵심 파트너와의 국내의 협력을 강화하여 필요한 사업 자원을 동원한다

아메리카

AMERICA



운영 7개 국내사무소: 캐나다,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멕시코, 베네수엘라
3개 지역사무소: 미국, 아르헨티나, 바나나

예산 USD 181,527,731

아메리카 대륙에는 450만 보호대상자들이 있으며, 이 중 70%에 달하는 인구가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국내의 강제이주는 계속되고 있으며, 멕시코 및 중앙 아메리카 등지에서 갠단과 같은 비국가 활동세력들이 민간 인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폭력에 점점 많은 수의 비호신청자들이 혼합이주 양상을 띄며 늘어나는 중입니다. 지난해 라틴아메리카 내 경제 위기와 끔직한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 비호신청자의 수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또한 인신매매 방지를 비롯하여 무의탁 아동, 무국적자와 같은 취약한 집단에 대한 보호에도 유엔난민기구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멕시코가 남미 대륙에서 첫번째로 국내 난민법을 제정하고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이 통합적인 형태의 보호를 받게 되면서 난민보호에 대한 법적 체계 발전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2012년 중점 사업계획

- 인식 개선 캠페인과 정부 대상의 기술 및 법적 지원 제공을 통하여 아메리카 대륙 전역의 제한적인 난민 지위 심사를 완화한다.
- 영구적 해결에 대한 공감과 강제이주 방지를 통하여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내 난민 및 국내실향민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 무의탁 아동과 같은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멕시코 및 중앙아메리카 내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혼합 이주 상황을 해결한다.
- 카리브 해 지역의 무국적자 발생을 방지하고 이를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무국적자를 파악하고, 각국 정부의 국제 협약 가입, 보호 대상자 등록 및 문서화 작업을 옹호하며 동시에 기술 및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2012년 유엔난민기구 사업에 필요한 자금

2012년 유엔난민기구에 필요한 자금은 약 미화 35억 9천만 달러 (한화 3조 5천억 원)로 전년도 필요한 자금보다 약 8%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유엔난민기구의 대응이 요구되는 여러 긴급상황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11년에 이어 올해에도 여전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남수단과 소말리아, 리비아와 파키스탄은 특히 더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올해에도 계속해서 이 지역들의 필요를 살피고 보호대상자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단위 : USD)

사업	난민	무국적자	재정착	국내실향민	TOTAL
아프리카	1,398,234	20,558	100,054	254,916	1,773,764
중동	242,880	3,120	29,914	154,880	430,795
아시아	280,096	10,291	108,298	95,664	494,350
유럽	122,937	10,291	8,114	40,183	181,527
아메리카	58,741	4,264	-	32,519	95,526
글로벌 사업	151,652	-	-	-	151,652
본부	177,763	-	-	-	177,763
소계	2,432,301	56,186	246,382	575,465	3,310,335
사업 예비	248,848	-	-	-	248,848
소계	2,681,150	56,186	246,382	575,465	3,559,184
NAM 예비비	20,000	-	-	-	20,000
JPO	12,000	-	-	-	12,000
소계	2,713,150	56,186	246,382	574,465	3,591,184

*본부사업비는 제네바의 유엔난민기구 본부를 비롯하여 한국대표부를 포함한 각 국의 사무실의 운영 및 행정비를 포함하는 비용으로 그 일부는 유엔분담금에서 충당 (2012: USD 44.1M, 2013: USD 42.8M)

*NAM (New or additional activities - mandated - related) 예비비: 유엔난민기구의 임무와 관련한 신규 및 추가사업을 위한 비축비용

*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유엔 본부로부터의 초급전문가 양성 및 채용을 위한 비용

2012년 유엔난민기구의 자금 및 자원 마련

이전까지 유엔난민기구의 연간 사업은 예상 후원금을 바탕으로 기획되었으나 현재는 기구의 보호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지원 및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유엔난민기구의 자금 모금 전략의 기본 전제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 새로운 후원국 모색과 함께 민간부문의 후원금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나오는 후원금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2012년 미화 1천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중에서도 개인후원자의 정기적인 후원은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인 자금으로서 유엔난민기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13년까지 유엔난민기구의 개인후원자는 일간후원자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70만 명을 넘어설 것이며, 후원 기업 및 재단 역시 함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국-탐 힌 난민촌의
15년



세 시간,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가장 가까운 난민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차가 비포장 도로를 들어서면 이곳에 사람이 살긴 하나 심을 정도로 외진 곳이 나옵니다. 그 곳에 약 8천여 명이 살고있는 탐 힌 난민촌(Tham Hin Refugee Camp)은 위치해 있었습니다. 탐 힌 난민촌은 태국에서 가장 작은 난민촌 중 하나로, 버마 소수민족인 카렌족이 1997년 이후부터 전쟁을 피해 이 곳에서 15년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함께 피난 온 아이는 난민촌과 함께 나이를 먹어 어느덧 15살, 사춘기를 맞이합니다. 이 곳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외지고 소외된 곳. 난민촌 내 작은 발전기를 통해 꼭 필요한 전등이나 전자제품 등을 작동시키는데,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하루종일 라디오를 들으며 난민촌 바깥의 세상을 상상하곤 합니다.

2007년 제 3국으로의 재정착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약 6천여 명의 난민들이 미국, 캐나다, 핀란드 등으로 새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자국내 불안한 상황과 난민촌의 고된 생활, 커가는 자녀들에 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재정착이 시작되면서 재정착을 원하는 사람들과 귀환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난민촌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의견은 갈렸습니다. 홀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 여성은 정식 등록 난민으로, 장애가 있는 두 딸을 키우고 있어 재정착 우선순위에 있었지만 부모의 반대로 끝내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 곳에서 잘 커나갈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한 편 매년 입후보 및 투표 과정을 거쳐 선발되는 난민촌 자치위원회는 지금의 불확실한 상황이 걱정스럽습니다. "처음에 우린 총소리를 피해 도망쳐와서 이 곳에서 하루 빨리 본국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렸지요, 그렇게 15년이 흐른거예요. 이제야 본국의 상황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치위원 한 분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귀환할 수 있을지, 혹은 다른 나라로 재정착을 해야할지 갈림길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상황이 확실해질 때까지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한국의 후원자들이 기억하고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시간이 흐릅니다. 하지만 떠나왔던 그날의 기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머물러있는 사람들이 이 곳에 있습니다. 방문하면서도 사람이 살거라곤 예상치 못했던 외딴 곳이었습니. 그들이 역사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그리하여 정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 동안 우리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기억할 것입니다. 그 곳의 사람들과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말합니다.



에티오피아- 하센의
5일



2011년, 수천만 명의 소말리아 난민들이 전쟁과 기근을 피해 국경을 넘었습니다. 당시 인접국인 에티오피아의 돌로 아도 난민촌(Dollo Ado Refugee Camp)에 도착한 아동들 가운데는 보호자 동반없이 혼자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센(Hassen)도 그러한 무의탁 아동 중 하나였습니다. 하센이 돌로 아도 난민촌에 도착했을 무렵은 가족을 마지막으로 본지 이년이 넘어갈 때였습니다. "장남인 저는 가족들이 다 떠날 때 할머니와 함께 남아있었어요, 할머니는 너무 나이가 많고 몸이 안좋아서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열다섯 살, 집안의 가장 큰 아들이었다는 하센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하센은 소말리아를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기르던 염소도 다 죽고 더 이상 제가 살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제 가족들을 다시 만나야했어요." 하지만 안전한 난민촌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센과 같이 혼자 여행하는 소년에게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소말리아 국경까지 가는 데 꼬박 3일이 걸렸습니다. 그는 나귀 수레를 타기도 했고, 걷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로 아도 난민촌에 도착했을 당시 그는 무엇을 해야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제 가족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체 어떻게 찾아야할지 알 수 없었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돌로 아도 난민촌 도착 후 몇시간 이내에 유엔난민기구 난민 등록관(UHCR registration clerk)은 하센의 부모와 다섯

형제들이 고베 난민촌(Kobe Refugee Camp)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후, 그가 그곳에서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하센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유엔난민기구가 아니었으면 하센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가족이 모두 모이니 꼭 여기가 우리 집인것만 같습니다."

유엔난민기구 난민등록관은 난민촌에 들어오는 모든 난민의 이름, 출생지, 부족 이름 등을 기록 및 통합 데이터 베이스에 관리함으로써 가족 상봉에 가장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등록시 사진과 지문도 찍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도 가족들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유엔난민기구는 적절한 위탁 가정을 찾아 단 한명의 아이도 혼자 남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티오피아에 있으니 학교에 가보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어요." 웃음을 되찾은 하센이 입을 엽니다. "가족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바로 여기가 제가 있을 곳이예요!"





6월 18-20일 3일 간 국회를 비롯한 서울 곳곳에서는 플래시몹이 진행되었습니다. 6월 20일 난민의 날과 난민협약 60주년을 기념하는 이벤트로 유엔난민기구와 국회사법포럼, 국가인권위원회, 공감, 난민인권센터, 동천 등 많은 단체가 함께 한 목소리를 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며 방송인 김미하, 김영미PD와 함께 분쟁지역 난민어린이를 돕는 다음 희망해 캠페인을, 유니클로(UNIQLO)와는 리사이클링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6명의 유엔난민기구 대학생 홍보사절단(유대홍)이 7기는 온라인 채널로 보다 나은 소통과 홍보 활동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활동해주셨습니다. 한 달 동안 유대홍 7기는 공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 모니터링, 개인홍보활동, 난민이슈와 관련된 콘텐츠 제작, 오프라인 팀활동, 영상 촬영 제작 등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유엔난민기구가 후원자 및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난민 어린이들을 돕기 위하여 2011년 5월과 11월 SBS 희망TV와 함께 하였습니다. 특히 이연희씨와 함께 방문한 케냐 다람 난민촌 영상이 11월 SBS 희망TV 프로그램에서 방영되어 시민과 후원자들에게 난민 어린이가 매일 직면하는 어려움을 보여주고 후원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참가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행사에 함께 참여해주었으며 희망TV를 통해 많은 시민분들이 유엔난민기구의 정기후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2009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이던 난민법안이 2011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지속적으로 난민법 초안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공청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법안의 세부내용 개선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여 난민법 제정 뿐만 아니라 난민의 사회권과 구금 대체방안, 지역사회 융화 등의 다양한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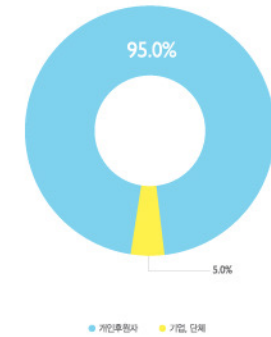
2011 한국대표부 전략 우선 순위

- 비호신청인들이 난민지위 심사과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인다.
- 대한민국 정부가 난민보호와 관련된 자원을 충분히 마련해 둘 수 있도록 정부기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한다.
- 한국 내 존재하는 유엔난민기구의 보호대상자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1년 후원금 수입/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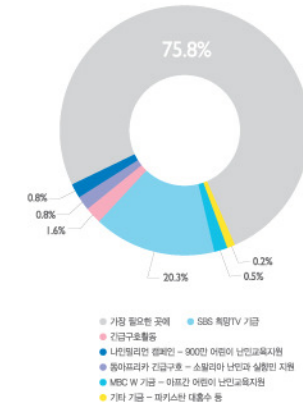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2011 수입

총 수입 :	1,480,287,889원	
개인후원자	1,408,686,289	95.2%
기업, 단체	71,601,600	4.8%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2011 지출

총 지출 :	1,480,287,889원	
가장 필요한 곳에	1,121,679,258	75.8%
긴급구호활동	23,563,500	1.6%
니인밀리언 캠페인	12,347,500	0.8%
SBS희망TV기금	300,586,322	20.3%
MBC W 기금	7,031,000	0.5%
동아프리카 긴급구호	11,809,309	0.8%
기타 자금	3,271,000	0.2%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2012년 말까지 한국 사회에 하나의 기관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한다.
- 유엔난민기구의 보호대상자인 난민들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원조와 개인의 후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다.
- 개인후원자의 후원과 참여를 확대하며 모금 및 한국사회의 관심을 증대시킨다.
- 비호신청자와 난민에 대한 정확하고 따뜻한 시각의 언론 보도를 위해 노력한다.
- 한반도 내의 변화 상황을 주시한다.

<< UNHCR Mission Statement

UNHCR은 전 세계 난민보호와 난민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적인 행동을 이끌고 조정할 의무를 UN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UNHCR의 주요 목표는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고자 유엔난민기구는 모든 사람이 비호를 신청할 수 있고, 타국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으며, 자발적으로 귀환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에 영구 정착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난민의 어려움에 대한 영구적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UNHCR의 상임이사회 및 UN총회는 난민 외에도 귀환민, 국내 실향민, 그리고 국적이 없거나 논란이 되는 무국적자들에 대한 유엔난민기구의 개입을 허가하였습니다.

UNHCR은 강제적인 이주를 줄이고자 국가 및 국가기관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인권이 보호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협력하며 아동 및 여성을 보호하고 그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모합니다.

UNHCR은 각국 정부, 지역기구,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와 협력합니다. UNHCR은 참여의 원칙을 고수하며 기구의 활동이 보호대상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마땅함을 믿습니다.

